

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

- 영종대교 3개 영업소(인천공항, 북인천, 청라) 통행료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
- 원 장관, 「영종대교 통행료 기념행사(9.24)」에서 요금 인하 협약 체결

□ 10월 1일 00시*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.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.

* 9월 28일~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,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0시 기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24일(일) 오후 6시 「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」(이하 기념행사)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(이하 영종대교)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(주)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(KDI)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,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(위원장: 기획재정부장관)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.

□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, 북인천,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, 전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,600원에서 3,200원(51.5%)으로 인하된다.

○ 북인천 영업소는 3,200원에서 1,900원(40.6%), 청라 영업소는 2,500원에서 2,000원(20%)으로 각각 인하된다.

*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, 영업소별 인하 前 요금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인하율 차등 (인천공항) 6,600원: 2.27배 / (북인천) 3,200원: 1.85배 / (청라) 2,500원: 1.37배

□ 아울러,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,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, 인천대교*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(1일)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.

-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으나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”면서, “우리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숙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”고 전하는 한편,
- “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,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	(044-201-4328)
		담당자	사무관	양익준	(044-201-4333)
협조 부서	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정윤	(044-215-545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정	(044-215-5451)



참 고

영종대교 영업소별/차종별 통행요금

【영업소별/차종별 통행요금, 단위: 원】

영업소	차종	인하 전	인하 후	인하액	비고
인천공항 영업소	경 차	3,300	1,600	1,700	
	소 형	6,600	3,200	3,400	
	중 형	11,300	5,500	5,800	
	대 형	14,600	7,100	7,500	
북인천 영업소	경 차	1,600	950	650	
	소 형	3,200	1,900	1,300	
	중 형	5,500	3,200	2,300	
	대 형	7,100	4,200	2,900	
청라 영업소	경 차	1,250	1,000	250	
	소 형	2,500	2,000	500	
	중 형	4,200	3,500	700	
	대 형	5,500	4,500	1,000	

※ 차종구분

차종구분	포함차종	분류기준
경 차	-	-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.0 이하인 차량
소 형	- 승용차, 16인승이하 승합차 - 2.5톤미만 화물차	- 2축 차량 - 율폭 : 279.4mm 이하
중 형	- 17인승이상 버스 - 2.5톤이상 10톤미만 화물차	- 2축 차량 - 율폭 : 279.4mm 초과
대 형	- 10톤이상 대형트럭	- 3축 이상 차량